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성대히 개막



은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뜨거운 열망속에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주체110(2021)년 1월 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가 도래한 시대적요구에 맞게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엄정히 총화하고 사회주의위업의 보다 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명백히 재확정하며 실제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력사에서 여덟번째로 되는 당대회를 소집하였다.

조선혁명의 새로운 투쟁의 앞길을 밝힐 당 제8차 대회의 소집은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다음단계로 이행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자신심의 표출인 동시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전투적 행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정치적사건으로 된다.

총결기간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높이고 부강강병의 대업을 실현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더욱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즐기치게 투쟁하여왔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혁명발전의 추이와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일으키기 위한 새로운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토의결정하게 된다. 백전백승의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며 당의 구상과 결심을 충직하게 받아들여온 우리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발전과 전진방향을 가리키게 될 력사적인 당 제8차 대회에 최대의 경의와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있다.

5일 9시, 조선로동당과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수반이시며 주체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과 함께 대회주석단에 등단하시였다.

순간 대회장은 천재적인 예지와 결출한 령도력, 강인담대한 배짱과 의지를 지니시고 조선로동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총결기간 주체혁명위업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본태가 더욱 뚜렷해지고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우리 국가 제일주의의 찬란한 시대가 펼쳐졌으며 공화국의 존엄과 대외적지위, 종합적국력은 비상히 높은 경지에 올라섰다.

당중앙의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고 류례없이 혹독한 시련과 난관을 인내하고 분투하는 과정에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백방으로 다져졌으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절대적우월성과 자립, 자력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대회에는 제7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전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개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체 대표자들과 전당의 당원들,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체 대표자들을 대표하여 본 대회가 우리 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철저히 충실할것을 엄숙히 선서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개회를 선언하시였다.

무한한 걱정속에 휩싸여있는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새로운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주며 애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의하여 김재룡동지가 대회를 사회하였다.

대회는 집행부를 선거하였다. 대회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당 제8차대회 집행부에 높이 모시였다.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심과 충성의 마음을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으로 터쳐올리였다.

대회는 주석단성원들을 추천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집행부성원들과 총결기간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중요전투단위의 모범적인 일군들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대회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명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수철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주석단에 초대되었다.

대회는 서기부를 선거하였다.

대회는 다음의 의정들을 승인하였다.

- 첫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 둘째,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 셋째,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 넷째,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의에 들어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를 시작하시였다.